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64)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 (2)96사단주둔지-3 산천단 일대  
일제침략 생생한 역사현장 훼손 몸살

입력 : 2007. 04.26. 00:00:00



▲탐사팀이 삼의양 오름계곡에 구축된 일본군 갱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단단한 암반 뚫고 1백m 갱도 구축

### 종교시설로 활용...보존대책 시급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5년에 들어서면서 현재 제주시 권역 방어는 일본군 제58군 예하의 96사단에게 떨어진 지상과제가 된다. 96사단은 제주배치를 위해 그해 3월 10일에 처음 편성된다. 제주에는 그해 4월 1일 제292부대와 박격포부대가 모슬포항으로 들어온 것이 처음이다. 96사단 병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의 북쪽인 제주시 방면에 자리한다. 제주시는 모슬포 및 한림 지역과 함께 미군의 상륙예상지점으로 꼽히고 있었다.

1945년 6월 15일 무렵에 작성된 군사지도인 일본군 '제58군배비개건도'를 보면 96사단 사령부의 위치는 제주시 산천단 일대로 나타난다. 이 일대는 '주저항진지'로 구축됐다.

일본군 진지는 지형과 지역 등 전략적인 면을 고려하여 '위장진지' '전진거점진지' '주저항진지' '복곽진지' 등으로 구분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 주저항진지는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서 방어해야 하는 핵심 거점이 된다. 이를 입증하듯 산천단 일대는 대규모 갱도진지가 구축된 사실이 특별취재팀에 의해 확인됐다.

대규모 갱도진지는 일명 '섯굴치'(산지천 상류) 뿐 아니라 삼의양오름을 끼고 있는 계곡인 '동굴치'에서도 확인된다. 셋굴치에 10여개에 이르는 갱도에 이어 반대편인 동굴치에서도 갱도가 구축된 사실은 이 일대 전체가 요새로 꾸며졌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갱도 내부 공간에 천막을 치고 종교시설로 이용한 모습, 전기까지 가설돼 있다.

삼의양오름의 '동굴치'에서 찾아낸 갱도는 단단한 암반을 뚫고 만들어져 있다. 웬만한 폭격에도 끄덕 없을 정도로 견고한 느낌을 준다.

갱도의 총 길이는 80m 정도에 이른다. 갱도 내부에 길이가 10m 정도에 이르는 공간들을 포함하면 그 길이는 1백m를 넘는 규모다. 갱도의 전체적인 모습은 직선형 통로를 따라 양쪽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갱도 내부의 공간은 10m 정도의 일직선 형태가 있는가 하면 다시 그 안에 널따란 방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는 등 특이하다.

갱도는 입구통로를 지나면 철문이 가로막는다. 갱도내부에 웬 철문일까.

하지만 이런 의문은 금새 풀렸다. 갱도 내부는 종교 시설로 이용되면서 전기까지 가설해 놓고 있다. 갱도내부의 공간에는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은데다 연단까지 차려져 있어 집회장소로 이용됐음을 보여 준다. 내부는 또 페스티로폼과 쓰레기 등이 나뒹굴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암반수가 흐르는 갱도 내부.

일제의 침략야욕을 생생히 보여주는 아픈 역사현장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면서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산천단 일대는 갱도가 무더기로 구축된데다 하천바닥에서는 갱도내부나 바위를 굴착하는데 사용되는 삭암기 구멍흔적이 다수가 발견돼 시선을 끈다. 총 15개의 삭암기 구멍이 한 평 남짓한 바위 위에 뚫려 있어 하천바닥을 평탄작업 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닌가 여겨진다.

산천단 인근의 소산봉에서는 당시 만든 군사도로의 자취도 볼 수 있다. 또 갱도내부를 법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산천단 일대에서 확인된 갯도들은 규모에 못지않게 구조 또한 치밀한데다 96사단 사령부 및 292연대본부 주둔지라는 역사성을 감안할 때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학계에서는 제주도 및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 등록작업에 관심은 물론 이를 계기로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보존·활용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전문가리포트]내륙지역 지휘부 위치한 요충지



제주시 아라동, 오라동, 연동, 해안동, 봉개동과 인근 산천단, 삼의약, 민오름 등에서부터 한라산 중턱 어승생악까지 오름들은 옥쇄작전 준비를 지휘하던 일본군 제58군 사령부와 제96사단 주력이 주둔했던 전략적 요충지다.

제58군사령부는 1945년 4월 8일 전투서열로 편입된 후 4월 20일 군사령관 나가츠 사비주(永津左比重) 중장이 제주도에 도착, 현 제주시 삼도1동 삼성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던 전 제주공립 농업학교에서 본격적인 작전준비 지휘를 시작한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7월 10일 일본군 기밀문서에는 제58군 사령부가 이 때 어승생악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실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제96사단은 대정과 안덕지역으로 상륙한 미군에 제1선이 무너질 경우와 제주항과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미군의 상륙가능성 등에 대비해 제주시를 집중방어하기 위한 기동결전병단이었다. 이 부대는 옥쇄작전이 준비되면서 가장 먼저 제주도에 진출한 부대로 예하 보병 제292연대와 박격포대가 1945년 4월 1일 대정읍 모슬포를 통해 들어왔다. 이어 보병 제293연대, 제294연대가 4월 9일 도착한다. 제96사단은 제주도에 진출한 후 제58군사령부가 지휘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실상 제주도에서의 옥쇄작전을 위한 제반준비를 담당하였다.

제96사단 사령부와 주력부대의 최초 배치지역은 정확치 않으나 제58군사령관이 도착하기 직전인 1945년 4월 18일 사령부가 산천단으로 이동한 것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제주시 내륙지역인 아라동, 오라동, 연동, 해안동, 봉개동과 인근 오름 일대에는 제96사단 예하 3개보병연대, 야전병원, 독립대전차제32대대, 제3독립작정소대, 야전중포병제15연대 특수포중대, 제59·60고사포중대 등이 주둔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된다.

<강순원/일제전적지탐사단 자문위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